

두 번 접는 스마트폰 공개 등 전 세계에 ‘대한민국 세일즈’

31일 개막 APEC 준비 분주

젠슨 황 등 글로벌 빅테크 수장 참석

SK, 부대행사 ‘퓨처테크포럼 AI’ 주관
삼성전자 ‘트라이폴드’ 폰 첫 공개
현대차, G90 등 차량 192대 제공
한화그룹, 5만발 불꽃·드론쇼 예정

20년 만에 다시 우리나라에서 열리는 아시아 태평양 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가 보름 앞으로 다가오면서 국내 기업들의 움직임도 빨라지고 있다. 21개 회원국 정상과 글로벌 기업 CEO가 모이는 국가적 행사인 만큼 ‘대한민국 세일즈’를 위한 기업들의 기술 경쟁 등 경제 콘텐츠 준비가 막바지 단계에 접어들고 있다. 특히 인공지능(AI) 반도체 시장을 선도하는 젠슨 황 엔비디아 최고경영자(CEO)를 비롯한 글로벌 빅테크 수장들이 참석하는 만큼 각사가 보유한 기술적 역량을 집결시켜 APEC의 성공적 개최와 함께 경제적 파급효과에 대한 기대감도 높아지고 있다.



LG전자가 뉴욕 타임스스퀘어 전광판에서 상영 중인 APEC 정상회의 홍보영상.

15일 재계에 따르면 삼성, 현대차, 한화, LG, SK 등 국내 주요 기업들은 APEC 정상회의에서 ‘K-테크 쇼케이스’ 등을 개최한다. SK는 APEC CEO 서밋 부대 행사인 ‘퓨처테크포럼 AI’를 주관하며 국가 AI 생태계를 주제로 한국이 구축해온 관련 육성 경험과 가치 창출 전략을 공유할 예정이다.

삼성전자는 경주 APEC 행사 기간 두 번 접는 ‘트라이폴드’ 스마트폰을 세계 최초로 공개하며 한국 첨단 기술력 알리기에 집중할 방침이다. 이재용 삼성전자 회장은 행사 별도 세션에는 참

석하지 않지만, 글로벌 정상 및 빅테크 인사들과의 교류·협력을 통해 지원에 나선다.

현대차그룹은 행사 기간 동안 각국 정상과 배우자 의전을 위한 최고급 세단인 G90 113대를 비롯해 장관급 인사 의전을 위한 G80 74대, 유니버스 수소 전기버스 3대, 유니버스 모바일 오피스 2대 등 총 192대의 차량을 제공, 성공적인 행사 진행에 힘을 보탠다는 계획이다. 이에 앞서 오는 21~23일 인천 영종도에서 열리는 APEC 재무장관회의 및 구조개혁장관회의의 기간에 아이오닉 9



한화그룹이 APEC 정상회의 갈라만찬에서 선보일 불꽃드론쇼 시연 이미지.

과 제네시스 G80 등 의전 차량을 지원한다. 이를 통해 현대차그룹의 우수한 상품성을 전 세계에 각인 시키는 계기로 삼겠다는 계획이다.

한화그룹은 APEC 정상회의 공식 스폰서로 참여, 오는 31일 개최되는 정상회의의 하이라이트인 갈라 만찬에서 5만발의 불꽃과 2000여대의 드론으로 경주 밤하늘을 화려하게 수놓는다. 불꽃·드론쇼를 비롯해 안전 및 환경 관리 등 불꽃 행사 관련 비용을 지원한다. 한화는 국내외 대표 기업 최고경영자(CEO)와 정부 관계자 등이 참여하는 ‘AP

EC CEO 서밋’에서도 공식 스폰서로 나선다.

공식 후원사 가운데 최고 등급인 다이아몬드 스폰서로 참여해 방산 분야 퓨처테크포럼을 개최하고 CEO 서밋 세션 연사로 참석한다. ‘APEC CEO 서밋’의 부대행사로 준비되는 퓨처테크포럼에서 국내외 군 및 방위산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K-방산 경쟁력을 소개할 계획이다.

LG는 경주에서 운행 중인 시내버스의 절반가량인 70대 차량에 APEC을 알리는 래핑 광고를 진행하고 있다. 또 강남 코엑스·광화문·시청·명동 등 서울 주요 7개 지역과 미국 뉴욕 타임스스퀘어·영국 런던 피커딜리 광장 등 세계 주요 명소에 자리한 대형 전광판에서 APEC 공식 홍보영상을 송출하고 있다.

재계 관계자는 “20년 만에 국내에서 열리는 행사인 만큼 세계 각국 정상과 귀빈에게 기업들을 알릴 수 있는 중요한 기회”라며 “각 기업들이 다양한 지원을 통해 성공적인 개최에 힘을 보태고 있다”고 말했다.

/양성운 기자 ysw@metroseoul.co.kr

韓·中, OLED 8.6G 대전환… 관건은 ‘수율’

양국 대표기업, 생산라인 투자 속도
삼성D, 4.1조 라인 구축… 내년 양산
中 BOE·CSOT 내년이후 양산 목표

한국과 중국을 대표하는 디스플레이 업체들이 차세대 OLED 기술 개발에 속도를 높이고 있다.

삼성디스플레이와 BOE 등 양국 대표 기업들은 차세대 OLED 생산라인인 8.6세대(8.6G) 투자에 속도를 내며 세대 전환 경쟁이 본격화되고 있다. 6세대 스마트폰용 중심 시장이 노트북·태블릿 등 IT용으로 확대되면서 고난도 공정 수율 확보가 양국 관련 산업의 향방을 가를 핵심 변수로 부상했다.

15일 업계에 따르면 삼성디스플레이는 충남 아산에 4조1000억원 규모의 8.6세대 IT용 OLED 라인을 구축하며 2026년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다. 지난해 3월 설비 반입식을 열고 증착 장비 설치에 착수했으며, 같은해 10월 주요 설비 반입을 마무리했다.

중국 BOE는 약 630억위안(약 12조 6075억원)을 투입해 쓰촨성 청두에 8.6세대 IT용 OLED 라인을 건설 중이다.

또 TCL 계열 패널업체인 CSOT(차이나스타)는 약 290억위안(약 5조8000억원) 규모의 잉크젯 프린팅(iJP) 기술 적용 8.6세대 신규 라인 투자를 추진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BOE와 CSOT 모두 2026년 이후로 본격 양산을 목표로 하고 있어, 한국과 중국 모두 비슷한 시기를 목표로 세대 전환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모양새다.

8.6세대 공정 원장 면적은 기존 6세대(1500×1850mm)보다 약 2.2배 큰 2290×2620mm다. OLED 증착 공정은 면적이 커질수록 증착 정렬 오차와 열팽창 편차가 커지고, 미세한 평탄도 변화로 인해 막두께 균일성을 유지하기 어려워진다. 또 절단 과정에서 파손률이 높아지고 서브픽셀 정렬 요구 수준과 열·응력 제어 난도 역시 높아지기 때문에 초기 불량률 관리가 핵심 과제로 꼽힌다. 때문에 비교적 낮은 수준에 머물러 초기 고난도 공정 수율을 얼마나 빨리 일정 수준 이상으로 끌어올리느냐가 향후 양산 경쟁의 핵심 변수가 될 전망이다.

중국은 지방정부 보조금과 정책금융

을 통해 초기 설비 투자 부담을 완화하며 빠른 확장 전략을 펼치고 있다. 일부 지방정부는 투자비의 일정 비율을 무이자 융자로 지원하거나 설비 관련 세제 감면과 토지 사용료 인하 혜택을 제공한다. 국유은행은 장기 저금리 대출로 대규모 OLED 프로젝트의 자금 조달을 돕고 있어 대형 디스플레이 기업들의 8.6세대 라인 투자 속도를 끌어올리는 배경으로 작용하고 있다.

반면 한국은 보조금 등 양적 정책보다는 정밀, 선도 공정 기술과 장비·소재 경쟁력을 중심으로 수율 안정화 전략을 짜고 있다.

디스플레이 업계 전문가는 “한중 양국 모두 8.6세대 라인을 통해 IT용 OLED 시장 선점을 노리고 있지만 기술 진척도와 완성도 측면에서는 아직 한국이 우위를 점하고 있다”며 “중국이 정부 보조금과 정책금융을 바탕으로 설비 투자를 빠르게 늘리고 있어 양적 경쟁에서는 한국이 밀릴 수밖에 없는 만큼, 공정 정밀도와 품질 경쟁력 등 질적 우위를 얼마나 유지하느냐가 승부처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최희준 기자 nauta@



15일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바이오플러스 인터팩스 코리아 2025’에서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이 인사말을 하고 있다.

/한국바이오협회

바이오 리더 한자리… ‘통제비티’ 전략 공유 (건강 수명 연장)

‘BIX 2025’ 개막
세계 15개국, 300개 기업 참가
“K바이오, 미래 이끌도록 노력”

글로벌 제약·바이오 산업의 차세대 성장 동력으로 ‘통제비티(건강 수명 연장)’가 부상하고 있는 가운데 국내외 전문가들이 한 자리에 모여 노화률치로 대상으로 발전시키기 위한 전략을 공유했다. 특히 유전자와 세포 수준에서 이뤄지는 재생의료에 대한 논의가 이뤄져 ‘K세포 주권’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오는 17일까지 서울 삼성동 코엑스에서 열리는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 2025(BIX 2025)’가 15일 성대한 막을 올렸다.

바이오플러스-인터팩스 코리아는 국내 최대 규모 바이오 산업 전시회로, 한국바이오협회와 리드엑시비전스코리아가 주최하고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한다. 올해는 전 세계 15개 국가의 300개 기업이 참가한다. 각 기업 부스, 33개 전문 세션 등을 통해 연구개발, 제조·공정, 물류, 디지털 헬스케어 등 제약·바이오 산업 전반을 다룬다.

먼저 행사 시작을 기념하는 개막식에는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 이승렬

산업통상부 산업정책실장, 전윤중 한국 산업기술평가관리원장 등부터 중국상무부 투자촉진사무국 부국장, 캐나다 보건안보대응기구 차관보, 주한슬로베니아대사, 주한쿠바대사, 주한인도부대사 등 해외 주요 인사들까지 주요 인사들이 참석했다.

고한승 한국바이오협회장은 개막사에서 “예측 불가능한 글로벌 환경 속에서 기업들이 도전을 이어가고 있다”며 “K바이오 산업이 그린·화이트·배양식품 등 새로운 영역으로 지속 성장하고 대한민국 미래를 이끌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개막식 기초강연으로 로버트 하리리 박사의 세포 치료제에 대한 영상 발표가 이어졌다. 로버트 하리리 박사는 미국 생명공학 기업 셀룰러리티 창업자이며 인간 태반 유래 줄기세포를 활용한 다양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다.

그는 “노화 치료의 목적은 ‘줄기세포 고갈’과 ‘노화세포 축적’을 해소함으로써 특정 개인의 재생 능력을 회복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산후 태반유래 세포 기반 치료제는 염증이나 면역거부반응으로 인한 부작용까지 개선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청하 기자 mlee236@

“신병확보 국민부터 송환 서두를 것”

>> 1면 ‘정부합동대응팀…’서 계속

일단 정부는 올해 1월부터 8월까지 현지 공관에 접수된 감금 관련 신고는 약 330명, 외교부 공관 신고를 포함하면 약 550명인 것으로 파악했다. 대다수 사안이 처리된 가운데 현재 처리 중인 신고 건은 70여건이라고 위 실장은 설명했다.

위 실장은 현지 당국에 구금된 한국인 59명 송환 계획과 관련해서는 “빠른 시일 내 그분들을 서둘러서 데려오려는 입장이기 때문에 다 준비를 했다”며 “항공편도 다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관건은 캄보디아 측과 논의가 얼마나 빨리 진전되나인데, 이번 주 안이라도 우린 (송환)하고자 한다”며 “주말까지 해보려 한다”고 덧붙였다.

범죄조직에 억류된 국민의 경우는 변수가 많기에, 일단 캄보디아 정부가 신병을 확보한 국민의 송환부터 서두르겠다는 게 위 실장의 설명이다. 다만 이들 중 상당수가 현지에 남겠다고 해 송환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을지는 미지수다.

위 실장은 “우리는 그 안에(스캠 범죄종사자) 자발적·비자발적 가담자가 있다고 보지만 결국 범죄행위를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리로서는 그 사람들을 거기서(범죄행위에서) 이적시키는 게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서예진 기자 syj@